

조선후기 중국서책의 구입과 장황의 변화*

조 계 영**

■ ————— 《目 次》 ————— ■

- | | |
|-----------------|----------------|
| 1. 머리말 | 3. 조선서책의 粧綴 변화 |
| 2. 중국서책의 구입과 보존 | 1) 조선서책의 장황 |
| 1) 중국서책의 구입 과정 | 2) 다양한 형태의 編題 |
| 2) 중국서책의 보존 체계 | 3) 四針眼과 裏頭의 장황 |
| 3) 중국서책의 改粧 |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시대 서책에 극진한 뜻을 두었던 국왕은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서책을 간인하고 반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필요한 서책을 구입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많은 양의 서책을 收藏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증가된 서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책의 성격에 따른 별도의 藏書處를 건립하였으며, 서책의 목록인 書目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이르렀다. 서책에 대한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전근대시기의 서책이 지식 유통의 최대 情報源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문화선진국이었던 중국에서 간인한 서책은 항상 조선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使行時 구입 품목의 우선 순위였다. 조선은 사행을 통해 당시 조선에 없거나, 중국에서 새로 편찬된 서책들을 구입하였다. 조선전기부터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속된 중국서책의 구입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그 규모와 다양성에 있어서 조선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조선후기 昌德宮에는 중국서책을 수집하기 위한 藏書處로 養心閣, 闕古觀, 皆有窩가 있었다. 1700년 숙종이 景賢堂의 東行閣에 文獻閣을 건립하고 남긴 「文獻閣銘并小序」에 의하면, 당시 大

* 본 논문은 2009년 8월 27일-28일에 '한국의 기록문화와 범고창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內에는 세 곳의 장서처가 있었는데 養心閣·欽文閣·廂庫가 그것이다. 이 중 양심합은 중국서책만을 수장하였고, 흙문각과 상고는 조선서책을 수장하였다.¹⁾ 양심합은 大造殿의 南廊으로 熙政堂의 東北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이름은 寶文閣인데 효종이 1651년에 養心閣으로 이름 지었다.²⁾ 1776년 정조는 규장각과 함께 奉謙堂·열고관·개유와 西庫를 건립하여 각기 다른 성격의 奉安處와 장서처로 사용하였다.³⁾ 그 중 열고관과 개유와는 중국서책을 수장하였고, 서고는 조선서책을 수장하였던 건물이다.

조선시대에 구입한 중국서책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중국서책 구입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 정조 연간에 내각의 신하들이 중국서책을 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한 『內閣訪書錄』(奎1748)과 皆有齋와 閱古觀에 수장한 중국서책의 목록인 『奎章總目』(奎4461)과 『閱古觀書目』(藏K2-4654)을 대상으로 서목의 분류체계와 기술체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⁵⁾ 근래에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藏書家를 중국서책의 구입과 연관지어 藏書文化를 조명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⁶⁾ 이 연구에서 임란 이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私家の藏書에 使行員으로 중국을 다녀온 이들이 구입하여 온 서책이 더해져 조선 후기의 장서기들이 형성되었음을 밝히었다. 또한 중국서책이 조선에 미친 영향으로 고증학을 비롯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과 출판문화의 변화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선 후기에 구입한 중국서책은 ‘동아시아 지식의 유통’이라는 측면과 ‘조선서책의 粧綴史’의 측면에서 조명할 때 그 가치를 더욱 提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서책의 粧綴史’의 측면에서 중국서책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의 서책을 ‘내용’과 ‘형태’로 구분한다면, 본 논문은 ‘서책의 형태로 본’ ‘서책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다. 즉 조선 후기 중국

1) 『列聖御製』(奎1803) 卷之十五, 「文獻閣錄銘小序」 “大內藏書 凡有三所 一曰養心閣 一切藏諸唐板 二曰欽文閣 三曰廂庫 皆藏鄉本焉”

2) 『宮闕志』, 昌德宮志 “養心閣 卽大造殿南廊 在熙政堂東北 由莊順門入 (原)舊號曰 寶文閣 (增)孝宗二年辛卯上命齋曰敬義 閣曰養心”(서울학연구소, 1994 『궁궐지 I』). 양심합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종목이 언급한 바 있다. 李鐘勳, 2002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第26號, 韓國書誌學會, 15-20면 참조.

3) 규장각은 정조의 御眞·御製·御筆·寶冊·印章 등을 奉安하였고, 봉모당은 列朝의 御製·御筆·御書·願命·遺誥·密教·璫譜·世譜·寶鑑·狀誌를 봉안하였다.

4) 李存熙, 1977 「朝鮮前期의 對明 書冊貿易」 『震檀學報』 44號, 震檀學會; 姜惠英, 1984 「朝鮮後期 對中 書籍輸入政策 研究」 『도서관학논집』 제11권; 姜惠英, 1990 「正祖朝 奎章閣의 藏書構成政策에 관한 研究」 『清浪鄭泌謨博士華甲紀念論文集』; 신양선, 1996 「조선 후기 서지사 연구」, 혜안; 김문식, 2006 「조선시대 중국 서적의 수입과 간행: 『四書五經大全』을 中心으로」 『奎章閣』 2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 송일기, 1990 「『奎章總目』과 『閱古觀書目』」 『清浪鄭泌謨博士華甲紀念論文集』; 강혜영, 1994 「『內閣訪書錄』의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10집, 書誌學會.

6) 강명관, 1996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9; 김영진, 2006 「조선 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한양대학교 출판부; 朴徹宰, 2009 「朝鮮後期 藏書家와 藏書樓」 『東아시아 各國의 藏書樓와 그 文化史』, 제2회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서책의 구입 과정과 보존 체계를 살피고, 중국서책이 조선서책의 장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명하고자 한다.⁷⁾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먼저 『奎章閣志』(奎734)에 근거하여 중국서책의 구입 과정과 열고관과 개유와의 서가 배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열고관과 개유외에 수장된 중국서책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된 奉審과 曝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서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선서책의 장황으로 改粧한 사례를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선후기에 중국서책으로 인해 변화된 조선서책의 장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서책의 장황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후, 조선서책의 본문 앞에 編題를 넣은 사례, 四銜眼과 裝頭로 장황한 사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중국서책의 구입과 보존

1) 중국서책의 구입 과정

조선전기인 1435년 8월 24일에 聖節賀禮使節로 북경으로 출발하는 從事官이 가지고 간 事目에는 중국서책 구입에 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조목들이 있다. 그 사목을 보면 첫째,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편찬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서책들을 자세히 물어보아 살만한 것들을 사오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에 奏請한 서책을 황제가 반사하여 주면 사사로이 살 수가 없고, 예조에서 중국의 御府에도 없다고 말하면 드러내놓고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조선에 없는 서책으로 학자에게 유익한 것을 사올 것과 책을 살 때에 반드시 두 질을 사서 탈락할 것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경에 大畵의 板本이 있다면 종이와 먹을 마련하여 사사로이 印出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라는 것이다. 다섯째, 이전 사행시에 권질이 많아 간행을 마치지 못한 중국서책이 지금은 간행을 마쳤는가의 여부와 서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물어보라는 것이다. 여섯째, 중국 鑄字의 字體와 인출하는 것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오라는 것이다.⁸⁾

위의 사목에서 보듯이 조선전기의 사행에서 중국서책의 편찬과 간인에 관한 정보 입수와 중

7) 본고에서 사용하는 보존의 개념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실행을 의미한다. 보호(conservation)는 기록물이 훼손과 부식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복원(restoration)은 손상된 기록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R.하비(권기원·방준필·이준원 옮김), 1999 『자료보존론』, 사민서각, 21-23면 참조.

8) 『세종실록』 권69, 세종 17년 8월 24일 계해.

국서책을 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의 시도가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위의 使行齋去事目에 언급된 조목들은 이후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

조선후기에 중국서책을 구입하였던 과정은 『규장각지(奎734)』 下篇의 ‘購書’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규장각 四庫에 미비한 책은 그 책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문원에서 草記를 올려 구입하기를 청하였다. 초기는 본각에서 거행할 일이 있으면 제학과 직제학이 올리는 문서로서, 壯紙 半張에 “奎章閣啓曰 云云如何”라고 쓴다. 혹 외방에서 서책을 인출하여 오거나 연경의 시장에서 서책을 사올 일이 있을 때는 초기에 “奎章閣司卷 以提學直提學意啓曰 云云如何”라 쓰고 끝에 연월과 직함 없이 掌吏가 당상에게 出草한 후에 正書하여 司卷이 승정원에 올려 입계하거나 혹 사권이 바로 입계하도록 하였다.¹⁰⁾

국내의 서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책값은 서울에 있는 책은 호조에서 마련하였고, 외방에 있는 책은 비변사에서 구획하였다. 때로는 책값을 내각에서 바로 마련하는데 비싼 값을 들더라도 그 값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다. 연경의 시장에 사올 만한 책이 있으면, 초기로 윤희를 받은 후에 본각 당상이 某庫의 某銀 幾兩을 首譯인 上通事에게 획급하고, 중국서책을 구입하기 위해 연행시 정해진 8包 외의 은자를 중국에 들여보낸다는 關文을 平安道臣에게 보낸다.¹¹⁾ ‘某庫의 某銀 幾兩’이라고 한 것은 사행시마다 책값을 어디에서 얼마나 마련할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²⁾ 어떠한 책을 구입할 것인지는 연경에 가는 三使臣이 주관하여 사오도록 하였다.¹³⁾ 중국서책을 구입하는 이와 같은 과정은 홍문관에서 중국서책을 구입하였던 전례에 기초하여 마련한 것이다.¹⁴⁾

조선후기 왕실에서 중국서책을 구입하였던 전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欽定古今圖書集成』을 들 수 있다.¹⁵⁾ 주지하다시피 1776년 進賀兼謝恩使行의 正使 李儼과 副使 徐浩修 등은 정조의 명을 받들어 『四庫全書』를 구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사고전서』의 刊印이 아직 끝나지 않은

9) 1515년에 홍문관 부제학 金謹思가 사행을 통해 중국서책을 구입하고 都監을 설치하여 서책을 간인해야 한다고 아뢴 상소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1월 2일 갑신.

10) 『규장각지(奎734)』 上篇, 職官 草記.

11) 『규장각지(奎734)』 下篇, 書策 購書 “內閣四庫所未備之書 或在於京外 擴文院草記請買 而其價京則自度支拮据 外則自備局區劃 又或直自內閣經紀 要使優厚 不較其高下 至於燕市書冊 有可購來者 草記允下後 本閣堂上 以某庫某銀幾兩 劃給于首譯上通事 包外入送之意 行關平安道臣”

12) 조선전기에는 중국서책을 구입할 때 책값으로 濟用監에서 苧麻布를 지급하였다.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2월 23일 무자.

13) 조선후기 對淸使行은 正使·副使·書狀官의 三使臣과 역관일행의 堂上·上通事·從事官·寫字官 등으로 구성되었다. 『규장각지(奎734)』 下篇, 書策 購書 “且令赴燕三使臣照管貨來 同玉堂例”

14) 세자시강원이나 예문관에서 중국서책을 구입할 경우에도 홍문관의 전례에 의해 시행하였다. 『弘文館志』(규3127), 式例第六 書冊貿易式(二條) “本館如有未儲書冊 而非我國所有 則以質得於彼國之意 館官定奪於榻前(或以草記定奪)後 自本館移文該曹(卽戶曹) 使行時該曹給價于首譯處 質得於燕肆 歸納本館 ○我國京外凡有新刊之冊 本館隨所聞直爲移文(京司移文于戶曹 取來紙地 移送于戶曹司 使之印送 外則移文本道) 印來藏于本館(粧紙地等物 移文戶曹取用)”

15) 본 논문의 이후부터는 『흙정고금도서집성』을 『도서집성』으로 약칭한다.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序班에게 물어 『사고전서』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도서집성』을 찾아내게 되고, 이듬해인 1777년 2월에 5,020책의 『도서집성』 502匣을 銀子 2,150兩에 구입하여 오게 되었다.¹⁶⁾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당시에 구입한 『도서집성』이 5,022책 505갑으로 전하고 있는데,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한 完帙本이다.¹⁷⁾

중국서책을 구입하기 위해 公私間에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선의 사대부기에는 중국서책이 없는 집이 드물 정도였다. 당시의 중국서책들은 明末淸初의 문단 흐름과 박학·고증학의 발달을 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서책으로 성리학의 세계에만 침잠해 있던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1787년 10월 10일 비변사에서 올린 ‘使行齋去事目’에는 중국서책 중에서 구입을 금지시키는 조목이 있다. 모든 左道の 不經한 말과 이단의 妖誕한 말에 관계되는 서적과 雜術의 方書는 일체 엄히 막되, 역관과 三使도 소속은 물론 몰래 사는 일이 있으면 그 곳에서 적발하여 불사르고 狀聞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범한 자는 중형에 처하고 사신은 엄히 다스리며 書狀官은 그 지방에서 灣府에 定配한다는 내용이다.¹⁸⁾ 비변사에서 올린 사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교한 정조의 말에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서책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집에 넘치고 찬 것이 모두 중국서책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미 나온 본에서라도 탐독하면 해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선비가 다시 무엇하러 많이 사겠는가? 가장 미운 것은 이른바 명말淸초의 문집과 駢聯잡설이 더욱 世道에 해로운 것이다. 근래의 문체를 보면 경박하고 축급하여 館閣의 大手筆이 없는 것이 다 잡된 책이 많이 나온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법을 만들어 금지할 것은 없더라도 사신인 자가 그 중에서 심한 것을 금할 수 있다면 오히려 아주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니, 이 뜻을 사신이 알도록 하라. 잡술의 글로 말하면 元事目 가운데 특별히 科條를 세워서 반드시 엄하게 금하도록 하라.”

정조는 사대부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구입한 중국서책만으로도 충분하며, 명말淸초의 문집과 駢聯잡설로 인해 館閣의 문장가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조의 생각으로는 중국서책을

16) 『정조실록』 권3, 정조 원년 2월 24일 경신. 서반은 명대의 鴻臚寺 소속으로 궁정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백관의 班位를 정리하던 관원이었다. 서반을 통한 서책 구입에 대해서는 강명관, 2007 『책벌레들 조선 을 만들다』, 푸른역사, 178-191면 참조.

17) 이덕무의 『靑莊館全書』(제57권 叢葉記四圖書集成)에 따르면, 당시에 이미 중국의 富商들이 『도서집성』 3부를 사서 일본의 長崎島에 보내어 1부는 長崎의 官庫에 있고 2부는 江戸로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일본 도쿄의 國立公文書館에 소장된 『도서집성』(別000-0001)을 필자가 2009년 10월 13일에 조사하였다. 이 책은 紅葉山文庫本으로 책의 크기가 세로 28.3cm, 가로 17.8cm이다. 이 책의 總冊數는 5,006책인데 理學彙編의 學衍行典 권241-260·文學典 권65-66·권77-80·권221-222가 빠진 落帙本이다. 이 책의 장황이 중국에서 구입할 당시 그대로인 것으로 보아 『도서집성』의 완질본 5,020에서 14책이 낙질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중국에는 중국국가도서관과 고궁박물관 그리고 寧波의 天一閣에 『도서집성』이 각기 한 질씩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휘슈바오(조현주 옮김), 2008 『중국책의 역사』, 다른생각, 160-161면 참조.

18) 『정조실록』 권24, 정조 11년 10월 10일 갑진.

구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할 필요는 없으며, 使行가는 사신이 일차적으로 금하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799년 7월 16일에 이르던 정조는 進賀副使 徐滢修에게 『朱子大全』의 眞本과 『朱子語類』의 各本을 성심으로 구해올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釋官雜史 외에 아울러 중국본 經傳의 구입까지 금지하고 비변사에서 서장관에게 엄히 신칙하도록 하였다.¹⁹⁾

2) 중국서책의 보존 체계

(1) 열고관과 개유와의 서가 배치

1776년 규장각과 함께 건립한 闕古觀과 皆有窩는 중국에서 구입한 서책만을 수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다. 열고관은 규장각의 正南에 위치하였으며 상하 2층으로 두 칸으로 이루어졌다. 열고관에서 북쪽으로 꺾어 이어진 건물이 개유와인데 軒 1칸과 燬閣 2칸으로 지어졌다. 즉 열고관과 개유와는 ㄱ자로 이어진 한 건물로 열고관은 2층이고, 규장각을 향해 북으로 뻗어 있는 개유와는 1층으로 이루어졌다.²⁰⁾ 현재 열고관과 개유와는 남아 있지 않지만 『朝鮮古跡圖譜』에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중국서책의 수장처인 열고관과 개유와의 내부 구조는 어떠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장서를 관리하였는지는 『奎章閣志(奎734)』의 ‘藏書條’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서책을 수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藏書處에 서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서가는 북쪽 동쪽 서쪽의 벽 아래에 배치하였다. 서가의 높이와 폭은 수장처의 여건에 맞추어 4층이나 6층으로 만들었다. 북벽서가는 經部와 史部에 해당하는 서책들을 남쪽을 향하여 배열하였다. 이 때 경부를 왼쪽에, 사부를 오른쪽에 수장하였다.²²⁾ 동벽서가는 子部의 책을 서쪽을 향하여 배열하였고, 서벽서가는 集部의 책을 동쪽을 향하여 배열하였다. 이러한 서가 배치는 張伯玉의 『六經閣記』에 의거해 정한 것이다. 서가는 세면을 판으로 막았으며 서가의 다리는 비바람이 스며들고 벌레와 쥐가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높게 하였다.²³⁾

이렇게 완성된 서가에는 서고의 이름을 서가의 편액에 적어놓았는데, 경부를 놓은 서가에는 ‘甲庫’, 사부의 서가는 ‘乙庫’, 자부의 서가는 ‘丙庫’, 집부의 서가는 ‘丁庫’를 붙여 놓아 책을 찾는 데에 편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서가의 모습은 개유와에 수장되었던 중국서책의 목록인

19) 『정조실록』 권52, 정조 23년 7월 16일 임신.

20) 『규장각자-갑진신편(규3771)』 “正南曰闕古觀 上下二層(凡二間) 又北折爲皆有窩(軒一間燬閣二間) 皆所以藏華本圖籍也”

21) 『朝鮮古跡圖譜』 제10책, 사진번호 4757.

22) 북벽서가는 한옥의 구조상 동벽과 서벽에 설치한 서가에 비해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두 개의 부에 해당하는 서책을 수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23) 『규장각지(奎734)』 下篇, 書策 藏書 “先就藏書堂樓 爲書架於北壁下 層之高廣 隨間闊狹 或四架或六架 南向列峙 所以藏經史者而左經右史 又爲書架於東壁 制如北壁之架 西向列峙 所以藏子部也 又爲書架於西壁下 制如東壁之架 東向列峙 所以藏集部也(以張伯玉六經閣記定) 凡架於三面 皆隔以版 且高其足 免有風雨之滲漏 虫鼠之透入”

『奎章總目』(규4461)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 서목은 皆有窩甲庫(經)·皆有窩乙庫(史)·皆有窩丙庫(子)·皆有窩丁庫(集)로 분류되어 있어 『규장각지』(규734)의 기록과 같이 개유와의 서기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열고관의 갑고와 을고는 直閣이 司卷과 領籤 각 1명과 함께 맡아 관리하고, 병고와 정고는 待敎가 사권 2명과 영첨 2명과 함께 맡아 관리하고, 提學과 直提學은 그 일 전체를 다스렸다.²⁵⁾ 서침은 色紙 혹은 厚紙에 서명을 써서 각 帙의 사이에 꽂아 필요한 책을 찾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²⁶⁾ 경부는 紅籤, 사부는 靑籤, 자부는 黃籤, 집부는 白籤이었다. 서가의 상하좌우에 精腦를 담은 네 개의 주머니를 걸어 두었는데 방충 효과를 위해서이다.²⁷⁾



<그림 1> 중국서책의 장서처인 關古觀과 皆有窩

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고관과 개유와는 서로 이어진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규장총목』·『홍재전서』·『규장각지』 등에서 중국서책의 장서처로 두 곳을 혼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건물명을 지칭하여도 열고관과 개유와를 통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송일기, 앞의 논문, 436-437면과 張伯偉 編, 2004 『朝鮮時代 書目叢刊-壹』, 中華書局, 『奎章總目』 해제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25) 『규장각지』(奎734) 下篇, 書策 藏書 “經爲甲庫 史爲乙庫 子爲丙庫 集爲丁庫 各題車名於書架 以蔽緇四囊 掛于每架之上下左右 直閣與一司卷一領籤 掌甲乙庫 待敎與二司卷一領籤司卷二領籤 掌丙丁庫 而提學直提學總理其事”

26) 당송대의 비부에서 사용하였던 서침은 ㄱ자 모양으로 만든 牙骨에 서명을 새긴 후 朱墨으로 메웠다. 그리고 서침의 끝을 뾰족하게 하여 각 책갑의 사이에 꽂아 찾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히 간편하지 못하여 『육경각기』에서는 油素나 혹은 油黃을 쓴다고 하였다. 정조대에는 당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色紙 혹은 厚紙를 서침으로 썼다. 『규장각지』(奎734) 下篇, 書策 藏書 “書籤唐宋秘府之法 以牙骨刻書名煇朱 狀如曲尺 銳其一端 插于各帙之間 以便搜索 然此法殊不簡便 六經閣記 或用油素或用油黃 至今遵用以時措之宜 皆用色紙或用厚紙爲之”

27) 조선후기 봉인하는 왕실서책을 담은 함계에는 보통 白麻布나 白苧布의 겹주머니에 芻蒲末이나 菴苧末을 담아 넣었다. 趙啓榮, 2006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幀과 保存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13면 참조.

(2) 奉審과 曝曬를 통한 서책 관리

열고관과 개유와는 봉모당을 비롯한 다른 장서처와 마찬가지로 奉審과 曝曬를 행하여 藏書와 藏書處를 관리하였다. 봉심은 열고관과 개유외에 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매 봄과 가을에 제학·직제학·직각·대교가 黑團頤를 갖추고 먼저 장서처 앞에서 肅拜하고 사권과 영침을 데리고 봉심한다. 매 서가의 卷帙을 『奎章總目』과 비교하여 점검하고 書籤에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았다. 만약 장마가 지나기면 별도로 봉심하여 물이 스며들거나 새는 곳이 있으면 곧바로 고쳤다.²⁸⁾

『내각일력』에는 장마 후에 개유외를 수리한 사례가 다수 보이는데 한 번 물이 새었던 곳이 다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예를 들면, 1780년 6월 26일에 司卷 全大重이 奉謨堂·書香閣·皆有窟를 비가 그치는 대로 즉시 修改하도록 手本을 올려 아뢰었다.²⁹⁾ 다음날인 6월 27일에 日官이 추택한 修改日子인 7월 12일과 15일 卯時 중 7월 12일에 수개를 거행하라고 명하였다.³⁰⁾ 다음해인 1781년 윤5월 7일에 沈念祖가 봉모당·규장각·서향각을 봉심해보니 아무 탈이 없었는데, 개유외의 東簾 第三間 退廳仰壁과 附板이 지난날 탈이 있었던 곳에 다시 물이 스며든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호조에 분부하여 날이 갠 후에 바로 수리하도록 건의하였다.³¹⁾

1778년 2월 28일에 정조는 홍국영에게 개유외에 소장된 서적들을 오랫동안 점검하지 않아 찌가 어지럽게 붙어 있고 책의 질이 맞지 않으니 한 번 점검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함께 가서 본 후에 가지런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홍국영은 정조를 모시고 개유외의 대청에 나아갔고, 정조는 내시에게 책의 秩을 정돈시켰다. 정조는 注書와 翰林에게 개유외의 冊置簿를 가지고 책의 질을 따라 대조하여 점검하라고 명하였다.³²⁾ 책치부를 작성하여 장서를 관리한 예는 登瀛閣에 소장한 홍문관의 서책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등영각의 책치부는 홍문관 밖으로 내갈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³³⁾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도서집성』을 구입하여 열고관에 수장하여 두었던 목록인 『圖書集成分編第次目錄』(奎1760, 奎1762)이 전하고 있어, 5022책이나 되는 거질의 『도서집성』만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책치부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서집성』 5022冊은 502함에 넣어 櫥에 수장하였는데, 천자문의 순으로 ‘天’에서 ‘縣’까지 500개의 函次가 매겨졌다. 마지막 두 함은 목록 20책을 넣어 둔 함으로 함차가 없다. 현재 중국 심양고궁박물관의 文溯閣에는 『도서집성』을 수장하였던 서가가 있는데, 서가의 상측에는 가로로 ‘古今圖書集成’이, 원편에는 세로로

28) 『규장각지』(奎734) 下篇, 書策 藏書 “每春秋 提學直提學直閣待教 具黑團頤 先行肅拜於堂閣之前 率司卷 領籤奉審 每架卷帙 以奎章總目較考 書籤有誤則正之 若經霖雨 別爲奉審 有滲漏處 隨即修改”

29) 『內閣日曆』, 정조 4년 6월 26일 계유.

30) 『內閣日曆』, 정조 4년 6월 27일 갑술.

31) 『內閣日曆』, 정조 5년 윤5월 7일 기유.

32) 『일성록』, 정조 2년 2월 28일 기미.

33) 『弘文館志』(奎3127), 式例第六 藏書式 “冊置簿 切勿出入館門外”

‘第〇架’가 쓰여 있다. 또한 『도서집성』을 넣어 둔 木函에는 ‘古今圖書集成 第〇函’이라고 쓰여 있어 중국에서는 천자문의 함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의 正西쪽에 건립한 移安閣은 軒이 3칸이고 좌우에 각각 燠閣 3칸으로 지어졌으며, 御眞과 御製御筆 등을 봉안처에서 옮겨와 포쇄하는 곳이다.³⁴⁾ 서책을 포쇄하는 순서는 奉謨堂을 가장 먼저하고 다음으로 규장각과 열고관의 차례로 포쇄하였다. 서책을 포쇄하는 시기는 오월에 습하고 더우면 좀벌레가 생기니 서적은 오월 이후 칠월 이전에 모름지기 세 차례 포쇄해야 한다.

서책을 포쇄하는 알맞은 방법으로 반드시 날씨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을 때에 큰 집의 바람이 서늘한 곳에서 햇빛을 쬐이지 않으며 말려야만 한다. 만약 햇빛에서 말려 열기가 올라오면 책에 생긴 벌레가 빨리 퍼지게 된다. 포쇄기간은 오월 단오 후에서 칠월 초복 전까지 나누어 세 번을 행하는데 포쇄일을 택한 후에 이문원에서 초기를 올려 稟旨한다.³⁵⁾ 온돌에 불을 때어 습기에 찬 서책을 말릴 때에도 포쇄라고 칭하였다.³⁶⁾ 개유외에 있는 燠閣 2칸과 이안각에 있는 난각 3칸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중국 심양고궁박물관 문소각 내 『도서집성』 서가

3) 중국서책의 改粧

조선후기에 구입한 중국서책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열고관과 개유외에 수장하고 봉심과 포쇄를 행하여 관리하였다. 이 외에 조선에서는 어렵게 구해온 중국서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34) 移安閣의 옛 이름은 書香閣이며, 창덕궁 내 규장각의 正西쪽에 건립 당시의 모습 그대로 현전하고 있다.

35) 『규장각지(규734)』 下篇, 書策 燠書 “崔湜月令 詳論曝書之法 其曰五月 燠熱 蠹蟲生魚 書籍 五月以後七月以前 須三度云云 此蓋言曝書之日時也 又曰須要天晴時 於大屋風涼處 不見日曝令乾 若乘熱氣卷生蟲彌速云云 此蓋言曝書之節度也 今以五月端午後七月初伏前 分三度擇日後 摺文院草記稟旨”

36) 조계영, 앞의 논문, 143-145면 참조.

방법으로 조선서책의 粧綴으로 改粧하였다.³⁷⁾ 중국서책의 장황은 인출지와 비슷한 冊衣에 먼지 한 장을 붙인 정도여서 서책의 몸체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중국서책의 단점은 조선후기에 이규경(1788-1863년)이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행해진 書匠에 대해 변증하는 글에서 연경의 서점에서 어렵게 구입해 온 중국서책의 장황은 종이의 품질이 매우 약해서 훼손되거나 쪼먹고 쥐가 쓸기 쉬움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서책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비치하기가 어려우므로 중국 천일각에서 서책을 수장하고 관리하는 것과 같이 하기를 제안하였다.³⁸⁾

정조 역시 중국의 서책은 조금만 읽어도 금방 찢어지고 게으른 지는 누워 읽으니, 어떻게 經傳을 커다란 옥처럼 아끼고 神明처럼 공경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³⁹⁾ 이에 비해 조선서책은 종이 질기고 크기가 커서 중국서책보다 낫다고 정조는 평하였다. 즉 중국서책의 장황에 대한 정조의 생각은 중국에서 구입한 서책이 비록 經傳이라할 지라도, 그 장황은 경전의 정신을 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형태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듯 정조는 서책의 간인과 장황에 있어서 언제나 내용을 담기에 가장 합당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사숙고하였다.⁴⁰⁾

본 절에서는 조선후기 중국에서 구입해 온 서책을 改粧하여 중국서책의 단점을 보완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도서집성』의 개장을 들 수 있다. 1777년 2월말에 중국에서 구입해 온 『도서집성』은 1778년 3월 26일까지는 중국서책의 장황 그대로의 상태였음을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1778년 3월 25일에 정조는 규장각 제학 徐命膺에게 『도서집성』을 粧冊하려고 하니 빨리 입작하여 살펴보고 점검하라고 하였다.⁴¹⁾ 다음날 정조는 입작한 서명응에게 『도서집성』을 상세히 보았는지 물으니, 서명응은 漢唐 이래에 『도서집성』과 같이 해박한 책은 없는 듯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정조가 『도서집성』을 粧冊하는 데에 며칠 정도 걸릴 것인가 묻자, 서명응은 卷帙이 매우 많아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⁴²⁾

『규장각지』(규734)에 의하면 중국서책은 반드시 薰精紙를 써서 冊衣를 만들도록 하였다. 고정지는 오직 평안감영에만 있어 내각에서 필요한 수량에 따라 관문을 보내어 卜定하였다. 고정지가 미련되면 내각에서 장황을 담당할 솜씨 좋은 冊匠을 뽑도록 외각에 분부하였다. 책장은 내각에 들어와서 장황을 하거나 혹은 바로 외각에 서책을 주어 장황하도록 하였다. 장황에 들어가는

37) ‘粧綴’의 뜻을 비롯하여 조선서책의 장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38)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經史雜類 二, 典籍雜說 大東書匠辨證說 “至於藏書 則觀購燕市 乃是唐裝也 紙品甚脆 易受朽傷 蠹鼠偏蝕 一或毀破 更難備置故云然”(민족문화추진회, 1979) 285-286면 참조.

39) 『弘齋全書』 권29, 論音 『命使行講朱夫子書真本論音』 “人或謂經傳不可禁 而此有不然者 尊閣上 鄉本勝於唐本 且況吟唔則立渝 懶惰者臥看 安在其愛若球璧 敬若神明乎”.

40) 정조는 『춘추좌씨전』을 간인할 때 당대의 명필로서 ‘대명의리론’을 견지하며 청에 끝까지 저항한 인물의 후손이었던 曹允亨에게 ‘春秋綱字’를 쓰게 하였다. 김문식, 2000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태학사, 15면 참조.

41) 『승정원일기』, 정조 2년 3월 25일 을유.

42) 『승정원일기』, 정조 2년 3월 26일 병술.

物力과 工錢은 내각에서 호조에 감결을 보내어 알맞게 지급하도록 하였다.⁴³⁾

고정지는 벼짚 보릿짚 귀리짚 등 벼과의 단섬유 식물과 닳나무 등의 장섬유 식물을 혼합하여 만든 종이를 총칭하는 것이다.⁴⁴⁾ 서유구는 ‘관서 사람들은 벼줄기 끝을 찢어 종이를 만드는데 그 색은 담황색이다. 세상에서 고정지라고 부르는데 무늬를 밀어내어 책의로 쓸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⁴⁵⁾ 이규경은 ‘北關사람들은 귀리짚으로 종이를 만들어 황얼로 염색하므로 종이가 深黃색이 나며 두껍다. 이 종이를 黃紙라고 부르며 혹은 고정지라고 부른다고 하였다.’⁴⁶⁾ 서유구와 이규경이 언급한 고정지의 특성은 조선의 종이 중에서 중국서책의 책의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서책의 개장에 평안도의 고정지가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집성』은 1778년 3월 26일 이후 1780년 1월 9일 이전에 개장되었다. 개장을 마친 『도서집성』을 1780년 1월 9일에 정조는 檢書官인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徐理修에게 명하여 部目を 베껴서 각기 그 책에 매어 놓게 하였다.⁴⁷⁾ 부목을 베끼게 한 까닭은 개장한 『도서집성』의 앞면지에 部目を 쓸 때 참고하기 위해서였다.⁴⁸⁾ 『도서집성』은 6彙編, 32典, 6,109部가 1萬卷, 5,002冊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目錄 40권 20책을 합하여 총 5,022책으로 502套에 보관하였다. 정조는 검서관들이 써서 각 책에 매어 놓은 부목을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다시 쓰게 하였다. 2월 5일에 정조는 徐誦輔에게 『도서집성』의 부목을 얼마나 썼는지 가보고 오도록 하였다.⁴⁹⁾ 부목을 초출한 지 40일 만인 2월 21일에 『도서집성』 5,002책의 6,109부목을 베껴내는 작업을 마쳤다. 그 뒤에 정조는 尙衣院의 主簿인 卍允亨에게 명하여 『圖書集成』 4字의 書名을 쓰게 하고, 寫字官에게는 부목을 쓰게 하였다.⁵⁰⁾

43) 『奎章閣志』(규734) 下篇, 書策 粧書 “凡編書寫書印書購書之後 內閣分付外閣 抄擇冊工之精鍊者 隨卷快多少 定其人數 使之入來粧續 或直付外閣粧續 其物力工錢 則捧甘戶曹量宜計給 乃若唐本冊子 必用藥精紙爲衣 而藥精紙唯平安監營有之 自內閣從多少 行關卜定”

44) 정선영, 2007 『藥精紙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8輯, 書誌學會, 49면 참조.

45) 徐有集 『林園經濟志』, 『怡雲志』卷七 圖書藏訪下 ‘造東本裝書紙法’ “關西人搗藥穉造紙 其色淡黃 俗呼藥精紙 亦可研紋裝書”(保景文化社 影印本,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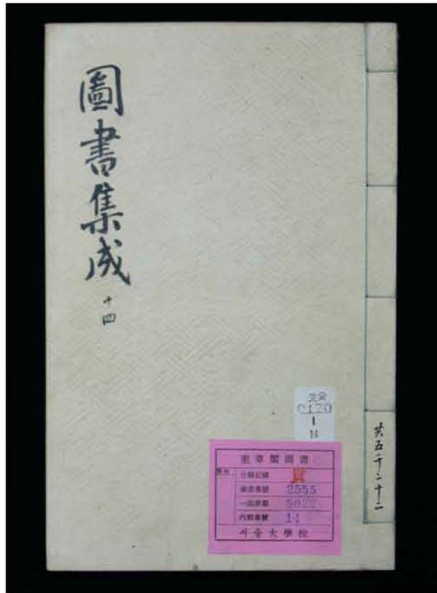
4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叢稿』 卷十九, 紙品辨證說 “北關人製紙 以耳麥稈 色染黃葉 故深黃且厚 名曰黃紙 或稱藥精紙” 조선시대 제조된 고정지는 보통 전라도는 벼, 경상도는 보리, 그리고 평안도는 귀리를 주원료로 택하였다. 정선영, 앞의 논문, 50-54면 참조.

47) 이덕무는 『도서집성』을 열람한 감격을 시로 남겼다. 『靑莊館全書』 제69권, 寒竹堂涉筆 下, 達句長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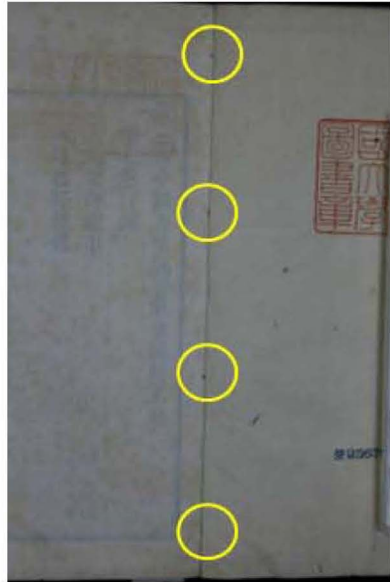
48) 部目은 ‘소제목’이라고도 하며, 각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篇目を 가리키는 것이다.

49) 『승정원일기』, 정조 4년 2월 5일 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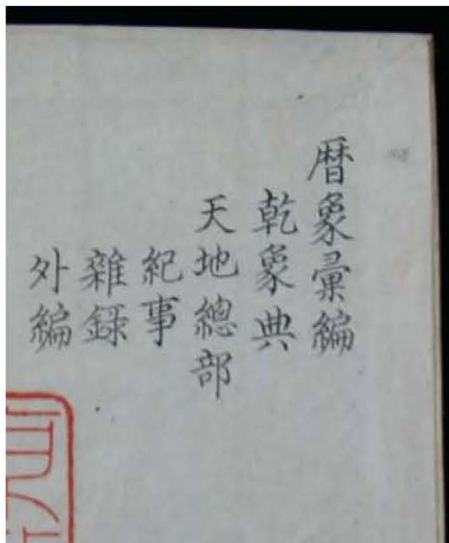
50) 즉 조윤형은 『圖書集成』의 4字를 5022번을 쓴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덕무가 조윤형에게 『圖書集成』의 4字를 얻고 싶다고 하자 조윤형은 무엇에 쓰려는지 물었다. 이에 이덕무는 조윤형의 익숙한 솜씨로 5,022번을 연습했으니 중요와 왕희지보다도 낫지 않겠느냐고 하여 모두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고 한다.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70권, 附錄上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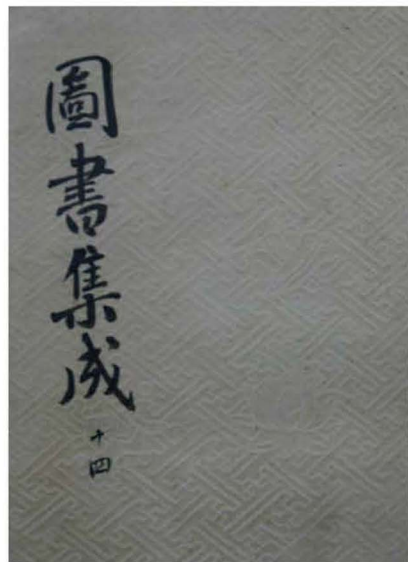
<그림 3> 『도서집성』(奎中貢2555)



<그림 4> 개장전의 사침안



<그림 5> 『도서집성』의 부목



<그림 6> 『도서집성』의 능화문

조선후기에 구입한 중국서책에 대한 서목으로는 『奎章總目』(奎4461)·『閱古觀書目』(장 K2-4654)·『奎章閣書目』(奎11670)이 현전한다. 이들 서목에 공통으로 수록된 서책으로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중국서책 중에 『經玩』(奎中4896)·『易纂言』(奎中3382)·『周易本義正解』(奎中4631)·『困知記』(奎中5217)의 개장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조선서책의 장황인 五針眼으로 개장되었으며, 개장 이전의 원래 침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조선서책의 粧纒 변화

1) 조선서책의 장황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서책의 장황’이란 ‘장정·bookbinding’을 가리킨다. 장황에 대한 한자는 중국에서는 ‘裝潢’으로, 조선에서는 ‘粧纒’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였다.⁵¹⁾ 중국의 한자 표기인 ‘裝潢’에서 ‘裝’은 ‘裝束과 裝飾’으로 묶고 꾸민다는 뜻이다. ‘潢’은 종이를 물들인다는 뜻으로, 좁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를 黃蘗汁에 물들이는 것을 말한다. 또한 ‘潢’을 ‘泮’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서화 지체를 연못에 비유하여, 그림의 사방 둘레에 비단 장식을 붙인 것을 연못의 테두리로 본 것이다. 즉 중국에서는 裝潢과 裝池 그리고 裝裱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⁵²⁾

이에 반해 조선에서는 ‘裝潢’과 같은 뜻과 음을 지닌 粧纒·粧潢·裝纒으로 표기한 것은 매우 독특한 사실이다. ‘粧纒’의 ‘粧’은 ‘粧飾’을 의미하고, ‘纒’은 ‘繩束’의 의미로 ‘줄로 묶는다’는 뜻이다. 또한 서책을 卷冊의 형태로 장황하는 것을 ‘粧冊’이라고 부르고 장황과 함께 사용하였다.⁵³⁾ 이는 成海應이 ‘粧冊은 ‘裝裱’를 가리킨다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⁵⁴⁾ ‘裱’의 원뜻은 옷을 벗긴다는 것으로 오래된 서화는 반드시 오염되고 손상된 舊裝을 벗겨내야 다시 새롭게 裝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라고 일컫는다.

51) 장황의 어원과 표기에 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 10-12면 참조.

52) 이규경(1788-1863년)은 書帖을 表楷하는 것을 裝潢 또는 裝池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다만 사람에 따라 달리 부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 명칭과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李圭景, 『五洲衍文長箋叢稿』 卷三十一, 『裝潢裝池辨證說』 “今書帖表楷 謂之裝潢裝池 然但隨口而言 實不能辨其名狀”

53)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인 『실록찬수청의례』의 「印出諸具」에는 ‘粧冊所入’과 ‘粧纒所入’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의미와 물품에 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 34-44면 참조.

54)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卷67, 雜綴類 燕中雜錄 書籍 裝裱, “粧冊謂裝裱 見元陶宗儀耕錄 明曹昭格古要論 而楊眞丹鉛錄類稱爲裝潢 潢者染紙也. 又卷首貼綾爲玉池爲罨”(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圖書影印, 第11號, 1982).

조선후기에 구입한 중국서책이 조선서책의 장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서책의 장황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서책과 중국서책의 線裝本 장황은 서로 다른 뚜렷한 차이가 있다. 조선서책의 장황은 冊衣를 종이로 만드는 紙衣일 경우 楷注紙 半張을 사용하고 뒷면을 저주지 2장으로 楷接하여 만든다. 이 때 책의를 黃染水로 물들여 건조시킨 후에, 菱花板 위에 놓고 黃蜜로 菱花紋을 밀어낸다.⁵⁵⁾ 능화판은 단단하면서도 결이 섬세한 나무를 택하여 능화문을 새기는데 卍字紋이나 七寶紋을 새기기도 한다.⁵⁶⁾ 조선서책의 능화문은 책의와 배접지를 밀착시키기 위한 실용성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로 서책을 장식하려는 예술성을 겸비한 것이다.⁵⁷⁾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서책의 책의는 印出紙의 5배 이상으로 두껍고 질기다. 그러나 중국서책의 책의는 특별히 인출지보다 두껍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조선서책의 책의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얇다.

조선서책의 책의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조선서책의 책의에는 長題目과 橫題目이 있다. 장제목은 書名을 세로로 길게 적은 것으로 서책의 상단 왼쪽에 쓴다. 장제목의 바로 아래에는 대체로 책의 차례를 나타내는 ‘冊次’가 있다. 책차는 서책의 完秩 冊數에 따라 다르게 표시한다.⁵⁸⁾ 횡제목은 각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篇目を 적은 것으로 서책 상단의 오른쪽에서부터 쓴다. 또한 책의에는 ‘秩別’ 표시와 總冊數가 기록되어 있다. 질별 표시는 서책의 위에서 첫 번째 책사와 두 번째 책사의 사이에 쓰여 있다. 총책수는 서책 한질의 책수가 모두 몇 책인가를 밝힌 것이다. 총책수는 書根에서부터 첫 번째 책사와 두 번째 책사의 사이에 ‘共〇’라고 숫자를 기록하여 서책의 완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서책은 책의를 배접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隔紙를 붙이는데 이를 面紙라고 한다.⁵⁹⁾ 면지는 배접지에 붙여지지 않은 한 쪽이 공백으로 비워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국왕이 서책을 내려줄 때 기록하게 되는 內賜記나 서책의 수장한 이가 남기는 藏書記가 그 좋은 예이다. 조선후기 왕실서책의 경우는 면지와 서책의 본문 사이에 空隔紙를 두어 왕실서책의 위격을 높였다.⁶⁰⁾

55) 조선후기 왕실서책의 장황에 들어가는 재료와 재료공급처에 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 36-43면 참조.

56) 徐有集 『林園經濟志』, 『怡雲志』卷七 圖書藏方下 『造東本裝書紙法』 “潔白紙裁作方冊大 染黃柏或槐子汁 裱楷涼乾 先用性堅理細之木 刻菱花 或卍字或七寶紋 取棧過紙噴水微濕 覆板上用上蠟研印 令極光滑可鑑”(保景文化社 影印本, 1983).

57) 조선시대 능화문의 유형에 대해서는 南權熙, 2004 『朝鮮時代 古書 表紙紋樣 變遷에 대한 연구』 『옛책의 아름다움』, 청주고인쇄박물관, 134-142면 참조.

58)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책차의 예를 들면 1책 완질일 때는 ‘全’ 또는 ‘單’으로 쓴다. 2책 완질일 경우 ‘上·下’ 또는 ‘乾·坤’으로 쓴다. 3책 완질일 경우 ‘上·中·下’ 또는 ‘天·地·人’으로 쓴다. 4책 완질일 경우 ‘元·亨·利·貞’ 또는 ‘春·夏·秋·冬’으로 쓴다. 5책 완질일 경우 ‘仁·義·禮·智·信’으로, 6책 완질일 경우는 ‘禮·樂·射·御·書·數’로 쓴다. 이 외에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등의 숫자로 써나가는 경우와 ‘卷之一·卷之二·卷之三·四·五·六·七·八·九·十’ 등과 같이 권차를 쓰는 경우도 있다.

59) 면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윤병태, 1977 『한국고서의 表紙와 面紙 : 圖書形態學 其一』 『伏賢文化』 第12輯 참조.

조선서책의 선장본 장황에서 가장 큰 특징은 五針眼이다. 오침안 선장본은 서책을 다섯 개의 구멍(針眼)을 뚫어 실로 묶는 것이다. 서책을 묶는 실을 冊絲라고 하는데 紅眞絲나 紅鄉絲를 사용하였다.



<그림 7> 紙衣의 『國朝寶鑑』
(규장각소장, 古4250)



<그림 8> 紬衣의 『璿源系譜紀略』
(장서각소장, 장K2-985)

2) 다양한 형태의 編題

서책의 본문 앞에 별도의 종이를 두어 書名을 표시한 것을 ‘編題’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封面葉’ 또는 ‘內封面’으로 부른다.⁶¹⁾ ‘편제’라는 용어는 1785년 『宮園儀』를 重刊할 때의 기록인 『宮園儀監印廳義軌』(藏K2-2433)에서 『궁원의』의 편제를 목판으로 간인했다는 기록에 나온다.⁶²⁾ 편제는 ‘標題’라고도 칭하는데, 조선시대의 오래된 표제로는 1425년 淸州에서 간인한 『陽村先生入學圖說』(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 貴C2113)을 들 수 있다. 그 후 임진왜란 전까지는 편제가 보이지 않다가 18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⁶³⁾ 1714년 5월 23일에 간인한 『儀象志』의 편제는

60) 조선후기 왕실서책의 장황에 쓰인 공격지에 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 40-41면 참조.

61) 朱養虹, 2001 『古籍修復技藝』, 文物出版社, 7-8면 참조.

62) 『궁원의』의 편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조계영, 2006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幀』 『書誌學研究』 第35輯, 書誌學會, 90-91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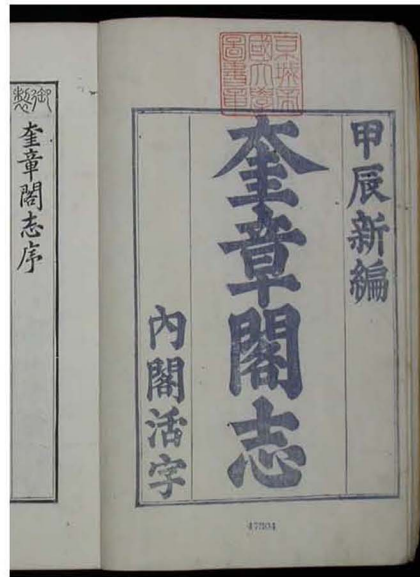
서명인 '儀象志' 세 글자를 大字의 형태로 찍은 것이다.⁶⁴⁾

편제의 일반적인 형태는 四周의 광곽 안에 3行으로 글자를 새긴다. 가운데 行에 大字로 서명을 새기고, 조금 작은 字로 오른쪽 行에 撰·著·編·選者를 새기고, 왼쪽 行에는 藏版 혹은 刊印者를 새긴다. 그리고 上邊의 광곽 밖에 刊版의 年月을 새기기도 한다. 편제는 明末과 清代의 중국서책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 조선후기에 구입한 중국서책으로 인해 정조대에 이르면 다양한 형태의 편제가 조선서책에 등장하게 되었다.⁶⁵⁾

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靑色과 黑色 두 가지로 편제를 인출했다는 점이다. 청색의 편제를 갖춘 서책은 주로 奉安件이나 관서 頒賜件인 것으로 보아 흑색 편제의 서책보다 그 위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唐宋八子百選』(奎2208)은 '辛丑新編御定唐宋八子百選內閣活字'라고 쓴 편제를 붉은 色紙에 금박으로 인출하여 매우 아름답다. 또한 편제를 쓴 사람을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1913년 金允植이 新式活字로 간행한 朴珪壽의 『藏齋先生集』(奎6934)이 그에 해당한다. 篆書로 쓴 '藏齋先生集'의 편제는 당시의 유명한 서예가인 劉漢翼이 쓴 題籤이다.



<그림 9> 『의상지』의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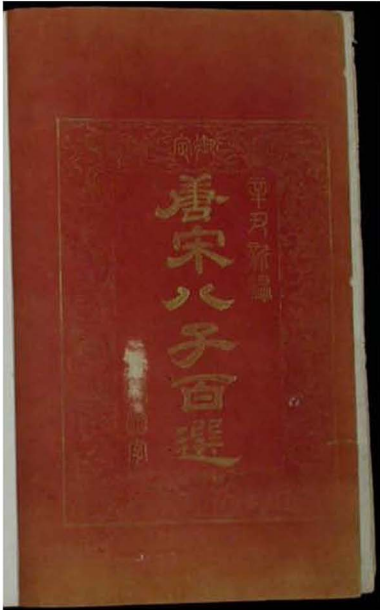


<그림 10> 『규장각지』의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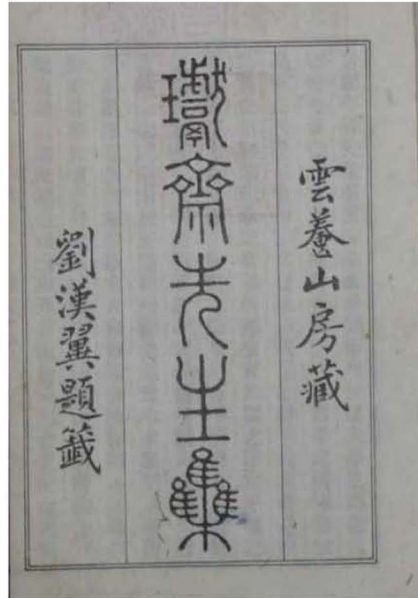
63) 표제의 구성과 기록한 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병태, 1981 「우리나라 古書의 卷首事項(1)」 『도서관』 제36권 제2호 ; 1981 「우리나라 古書의 卷首事項(完)」 『도서관』 제36권 제3호 참조.

64) 『肅宗實錄補闕正誤』 55권, 숙종 40년 5월 23일 계해.

65) 이러한 사실은 김영진(앞의 논문, 643면)·박철상(앞의 논문, 223면)·조계영(앞의 논문, 91면)이 언급한 바 있다.



<그림 11> 『당송팔자백선』의 편제



<그림 12> 『환재선생집』의 편제

3) 四針眼과 裏頭의 상황

중국의 선장본 서책은 보통 四針眼으로 장황하고, 큰 서책일 경우 六針眼으로 장황하였다. 중국서책의 보통 크기는 세로가 25-30cm이고 가로는 15-20cm이며, 큰 서책은 세로가 30-33cm이고 가로는 20-23cm이다.⁶⁶⁾ 사침안 장황에서 상하 서각에 각각 一針을 더한 것이 육침안이며, 육침안 장황을 花角式이라고도 부른다. 앞서 1절 조선서책의 장황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서책의 선장본은 오침안이 특징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구입한 중국서책의 사침안과 육침안 장황은 조선서책의 오침안 장황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사침안과 육침안으로 장황한 서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⁶⁷⁾ 그 대표적인 예는 정조의 문집인 『弘齋全書』(奎4465)로 비단으로 책의를 만든 후 사침안으로 장황하였다. 이외도 양성지의 『訥齋集』(奎487)과 박규수의 『환재선생집』(奎6934) 등이 있다.

66) 중국서책의 판형 크기에 대해서는 뒤슈바오(조현주 옮김), 2008 『중국책의 역사』, 다룬생각 203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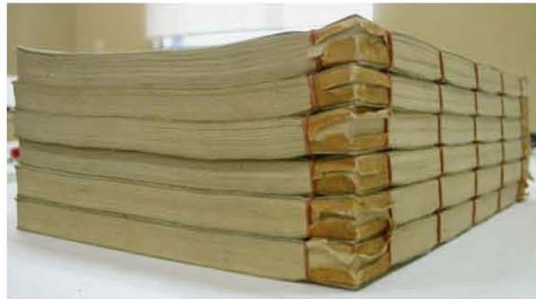
67) 물론 조선서책이라 할지라도 筆寫本의 경우에는公私間을 불문하고 서책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서 三針眼이나 사침안으로 장황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중국서책에서 서책의 오른쪽 부분 즉 책사로 서책을 묶는 부분을 ‘書腦’라고 하는데, 이 서뇌의 상하 양 끝을 ‘書角’이라고 부른다. 귀중한 線裝本 서책을 장황할 때 종이나 견직물을 가지고 서각을 싸면 서책을 보호하게 될 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더하게 된다.⁶⁸⁾ 중국서책에서 서각을 싸는 것을 ‘包角’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에서는 ‘裹頭’라고 일컬었다.

1832년 孝明世子の 睿製인 『敬軒集』을 繕寫하는 과정을 기록한 『睿製繕寫稽錄』(藏K2-3657)에 의하면 ‘玉色桃榴佛手緞’으로 冊衣를 한 『敬軒集』(藏K4-420)을 ‘紅可只緞’로 과두를 하였다.⁶⁹⁾ 이로 볼 때 書角을 조선에서는 ‘書頭’로 지칭하고, 서두를 싸는 것을 ‘과두’라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붉은 색지에 금박으로 인출한 편제를 갖추었던 『당송팔자백선』(奎2208)에도 과두로 장황하였다. 조선서책의 장황에서 과두가 나타나는 것은 중국서책의 포각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 『홍재전서』 사침안



<그림 14> 『경헌집』(藏K4-420)의 紅可只緞 裹頭

68) 朱寶虹, 『古籍修復技藝』(文物出版社, 2001년) “古書冊的右側 書腦的上下兩隅 稱爲書角 裝訂珍貴線裝書時 常用上等紙張加以 鐵衬 并用綾絹等絲織品 包裹書角 借以保護書籍 并使之更加美觀”.

69) 『睿製繕寫稽錄』(藏K2-3657), 壬辰十月初三日, “三件裹頭次 紅黃藍可只緞”. 『睿製繕寫稽錄』(藏K2-3657)에 대해서는 조계영, 2008 『조선후기 睿製의 繕寫와 보존』 『인문과학연구논총』 제28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3면 참조.

4. 맺음말

본 논문은 조선후기에 중국서책을 구입하여 보존하였던 과정과 중국서책이 조선서책의 장황에 가져 온 변화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서책의 구입은 草記로 윤험을 받은 후에 본각 당상이 某庫의 某銀 幾兩을 首譯인 상통사에게 획급하고, 중국서책 구입용으로 銀子를 중국에 들여보내려는 關文을 평안도신에게 보내는 과정을 거친다. 중국에서 구입할 책에 대한 결정권은 三使臣에게 있으며 현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사오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중국에서 구입한 서책은 창덕궁에 건립된 열고관과 개유외에 수장하였으며, 봉심과 포쇄를 행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책의가 약해 훼손되기 쉬운 중국서책을 조선서책의 장황으로 개장하여 영구히 보존할 것을 도모하였다. 조선서책의 장황에서 변화를 보인 여러 요소들은 한 서책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변화된 형태가 보이고 있다. 중국서책의 영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조대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의 편제가 나타나고, 조선서책의 장황에 편제가 자리 잡아 갔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식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후기 중국서책의 구입은 문화선진국인 중국에서의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따라서 중국서책을 구입한 후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수용하였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奎章總目』(奎4461)·『閣古觀書目』(藏2-4654)·『奎章閣書目』(奎11670)과 현전하는 중국서책을 면밀하게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를 연구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奎章閣志』, 中國書冊, 閣古觀, 皆有窩, 粧緘, 編題

투고일(2009. 11. 10), 심사시작일(2009. 11. 19), 심사완료일(2009. 12. 9)

참고문헌

- 『奎章閣書目』(규11670).
 『奎章閣志-初草 全』(규734), 『奎章閣志-再草 全』(규1400), 『奎章閣志-甲辰新編』(규3771).
 『奎章總目』(규4461).
 『內閣訪書錄』(규1748).
 『侍講院志』(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 2003년).
 『閣古觀書目』(장K2-4654).
 『列聖御製 四』(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 2002년).
 『弘文館志』(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 2002년).
 『欽定古今圖書集成』(奎中貴2555).
 서울학연구소, 1994 『궁궐지 I』.
 徐有奭, 『林園經濟志』(保景文化社 影印本, 1983년).
 成海應, 『研經齋全集』(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圖書影印, 第11號, 昨晨社, 1982년)
 張伯偉 編, 2004 『朝鮮時代 書目叢刊一壹』, 中華書局.
 正祖, 『弘齋全書』(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 영인본, 1978년).
 洪翰周, 『智水拈筆』(李佑成 編, 亞細亞文化社, 1984년).
- 강명관, 1996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9.
 姜惠英, 1984 「朝鮮後期 對中 書籍輸入政策 研究」 『도서관학논집』 제11권.
 _____, 1990 「正祖朝 奎章閣의 藏書構成政策에 관한 研究」 『清浪齋隱謨博士華甲紀念論文集』.
 _____, 1994 「『內閣訪書錄』의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10輯, 書誌學會.
 김문식, 2000 「정조 어제집 『홍재전서』의 서지적 특징」 『藏書閣』 제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2000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태학사.
 _____, 2006 「조선후기 중국 서적의 수입과 간행. 『四書五經大全』을 中心으로」 『奎章閣』29, 서울大學校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영진, 2006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한양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편), 한양대학교 출판부.
 남권희, 2008 「『奎章閣志』의 편찬과 19세기 奎章閣 서적보관제도」 『書誌學研究』 第40輯, 書誌學會.
 뒤슈바오(조현주 옮김), 2008 『중국책의 역사』, 다른생각.
 朴徹宰, 2009 「朝鮮後期 藏書家와 藏書樓」 『東아시아 各國의 藏書樓와 그 文化史』, 제2회 한문고전번역협 동과정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_____, 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中國本 古書의 가치」 『한국학논집』 제37집, 계명대학교 한국

학연구소

- 송일기, 1990 「奎章總目」과 「閣古觀書目」 『清浪鄭麟謨博士華甲紀念論文集』.
- 신양선, 1996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혜안.
- 윤병태, 1977 「한국고서의 表紙와 面紙 : 圖書形態學 其一」 『伏賢文化』 第12輯.
- _____, 1981 「우리나라 古書의 卷首事項(1)」 『도서관』 제36권 제2호.
- _____, 1981 「우리나라 古書의 卷首事項(완)」 『도서관』 제36권 제3호.
- 李存熙, 1977 「朝鮮前期의 對明 書冊貿易」 『震檀學報』 44號, 震檀學會.
- 李鐘默, 2002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26, 韓國書誌學會.
- 정선영, 2007 「葉精紙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8輯, 書誌學會.
- 趙啓榮, 2006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綴과 保存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6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綴」 『書誌學研究』 第35輯, 書誌學會.
- _____, 2007 「조선후기 왕실서책 粧綴時의 搗砧에 관한 고찰」 『古文書研究』 31, 古文書學會.
- _____, 2008 「조선후기 繪製의 繕寫와 보존」 『인문과학연구논총』 제28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 『옛책의 아름다움』.
- 켄트가이(양휘웅 옮김), 2009 『사고전서』, 생각의 나무.

<Abstract>

Purchase of Chinese Books and Changes in Bookbind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o, Gye Young *

Books printed from China, the culturally advanced country of East Asia, had always been a matter of utmost interest to Joseon and high on the priority purchase list of envoy dispatched. Joseon had bought the books that did not exist at that time or newly compiled books in China, through the envoy dispatched. The scope of purchase of Chinese books, which had continued in a constant effort since the early Joseon period, had been expanded to a degree incomparable to that of the early Joseon period in its scale and diversity, reach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thesis has examined the process Chinese books were purchased and preserved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what changes Chinese books had brought to the binding of Joseon books. To purchase Chinese books, after the royal sanction was given on Chogi(草記), Dangsang (senior third rank) of Gyujanggak (palace library) provided any number of wagons with any silver from any storeroom to Sangtongsa(上通事), the Suyeok(首譯; chief official interpreter in mission), and then an approval letter(關文) stating that silver coins would be admitted to China for Chinese books was sent to governor of Pyeongan Province. The decision on purchase of Chinese books lies with Samsasin (three envoies) and the purchasing was made depending on the local circumsta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books purchased from China had been stored in Yeolgogwan(闕古觀) and Kaeyuwa(皆有窩), and maintained with the process of Bongsim(奉審; attention) and Posoae(曝曬; ventilation and drying of the books). Besides, the Chinese books of which covers were so weak that they could be easily

* HK Research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uptible had been bound into Joseon book style for permanent preservation.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 out of the Joseon bookbinding styles affected by Chinese books was the appearance of tiles(編題) of various forms. In addition, the Joseon books were bound with four eyelet punched holes, formerly five holes, or wrapped with Gwadu(裹頭; head wrap) that protected book corners.

Key Words : *Kyujanggak chi*, Chinese books, Yeolgogwan, Kaeyuwa, bookbinding, peonje